

책과 더불어 빛을 빛는 사람들

《토지》를 찍은 부산 남구도서관 자원봉사자들

지난 8월 중순 대하소설 《토지》가 점자책으로 태어났다. 전집 16권을 채우고 있는 글 한자 한자에 빛을 채운 사람은 부산 남구 대연동 남구도서관(관장 김인선)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손빛회'와 도서관 자체 점자번역단 '옹달샘회' 소속 회원 20여명. 이들은 97년 6월부터 《토지》를 일정 분량씩 나눠 갖고 직장과 가정에서 틈나는 대로 번역했다.

“고인이 된 시각장애인 조희대씨와 그의 따님이 시작했으나 사정이 있어 그만두게 됐고, 이후 점자를 배운 자원봉사자들이 목표를 두고 해보자는 중지를 모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점자를 가르치고, 자원봉사자들을 독려해 《토지》번역을 주도한 백운택 간사는 그간의 사정을 한마디로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봉사자가 자기 몫을 나눠 번역했기 때문에 수시로 교정을 봐야 했고, 틀린 부분이



책에 대한 갈증 없애주는 문화공간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일산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총수는 380곳으로 1곳 당 주민수는 13만명에 이른다. 당연히 1인당 장서수도 부족해 주민들이 한꺼번에 찾아가 1권씩 빌린다면 반 이상이 책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1인당 0.34권)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설도서관은 구멍 뚫린 도서관 정책의 빈자리를 메우는 작은 알갱이가 된다.

고양시 일산구 마두4동 일산광성교회(정성진 목사)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이런 사례 중 모범으로 꼽히는 곳이다. 주민들을 찾아가는 사회봉사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인근의 문춘7 사회복지관, 인근 지하철역의 지하철문고 등과 함께 인구에 비해 도서관이 턱없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의 자발적인 도서관 운동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아스팔트 위에 핀 문화의 꽃

'민들레영토'의 지승룡 대표

'아스팔트 위에도 꽃이 필까?' 카페 '민들레영토'는 아스팔트 위에 핀 문화의 꽃이다. 소비와 향락으로 질주하는 세대 속에서 책과 휴머니즘의 정신을 결합시킨 문화의 영토를 가꿔가기 때문이다. 척박한 영토에 민들레 꽃씨를 퍼뜨리겠다는 지승룡 사장(42)의 독특한 문화마인드가 오늘의 도심을 비옥하게 하고 있다.

“도심 속의 식당과 카페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키우는 영양분이자 힘입니다. 메마른 도시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민들레영토'는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입니다.”

그는 문화도 벤처산업이라는 신념으로 95년 신촌의 한모퉁이에 '민들레영토'의 문을 열었다. 10평으로 시작한 민들레영토는 안암동 고대점, 동숭동 대학로 본관, 대학로 별관(10월 개관 예정)을 합쳐 1천여평을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



**“점자번역은 시간당
평균 8장정도
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없다면
방대한 분량의 《토지》를
번역할 수 없었죠.”**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기를 반복했다. 곡절 끝에 태어난 《토지》는 무려 96권. 원본 1권당 6권에 해당하는 양이다.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았지만 아쉬운 점이 많다. 타수작업을 한 까닭에 복본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토지》번역본은 유일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은 《토지》를 읽으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게 된 것에 뿌듯할 따름이다.

“시각장애인들은 작품성이 뛰어나고, 특히 사투리가 많은 작품을 직접 읽고 싶어합니다. 녹음본도 있지만 읽는 맛이 다르죠. 일반인이 비디오를 보는 것과 책을 읽는 것과의 차이쯤 되는 셈이죠.”

자원봉사자들은 앞으로 번역작업을 계속해 좀더 많은 사람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할 계획이다. 《임격정》은 이미 점역을 완료했고, 《한국의 성지》는 1차 번역을 마친 상태다. 《이야기 한국 역사》도 점역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가능하면 복본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할 생각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빛을 빔어 책을 만드는 자원봉사자와 도서관 지킴이들. 더불어 사는 이들의 얼굴이 더 없이 밝다. — 오원진 기자

**“교회가 사회에 대한
봉사를 등한히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에서
98년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수화교실·일본어·꽃꽂이 등 지역주민을 위한 43개 무료 문화강좌와 함께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평 규모의 공간에 4천여권의 책과 2백여개의 비디오를 비치해두고 있다. 공간이 협소한 듯 하지만, 열람이 아니라 대어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면에 책이 빼곡하다.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라 처음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뜸했지만, 이름이 알려지면서 차츰 일반인 이용자 수가 늘었다. 당연히 소장도서도 종교서적에 비해 일반서적이 더 많다. 굳이 종교를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성진 목사(44)의 얘기다.

“도서관 전체 이용자 중 지역주민이 70% 정도를 차지합니다. 계가 가도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죠. 하지만 그만큼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갈증이 심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입회비 2천원과 사진 1매를 제출하고 회원증을 만들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작은 도서관의 1일 대여권수는 50여권 정도. 벌써 총 대출권수가 1만권을 넘어섰다. 12명의 신도들이 자원봉사로 일하며 구입 도서를 신청받아 한달 평균 40만원 정도를 신간구입비로 투자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에서 자주 대출되는 도서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베스트셀러를 많이 빌려봅니다. 들어오자마자 대출돼 나가죠.” — 김연수 기자



**“휴머니즘의 상품화가
민토의 성공비밀입니다.
앞으로 문화를 통해
한국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문화서비스를
극대화해 대중공간 속에서
휴머니즘을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민들레영토’는 책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1만권을 넘는 책들이 곳곳에 꽂혀 있고 신간·잡지류를 판매하는 서점과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세미나실이 마련돼 있다. 대학로점 지하에는 라이브공연과 영화를 상영하는 민토객석이 들어서 복합문화공간을 이룬다. 지사장이 책이 있는 문화공간을 꾸리게 된 것은 책의 힘을 믿기 때문이었다.

“어릴 적에 부친께서 책을 많이 사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책이 큰 위안이 됐어요. 부친이 제게 했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책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서가를 꾸밀 생각입니다.”

처음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지은 명상집을 선물로 주고 도형을 이용한 심리상담도 해준다. 커피와 다른 차를 곁들인 민토차를 먼저 주고 ‘문화비’로 3천원을 받는다. 민토 안에서는 비치된 책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빌려볼 수도 있다. 세미나실은 이용객이 많아 예약을 해야 한다. 민토홈페이지(www.minto.co.kr)도 개설해 사이버상에 민들레영토를 구축해가고 있다.

— 박전홍 기자



카페 '민들레영토'